

재개 가능성 보이는 기숙사공사

정경대·A.V센터 증축허가후 착공될 예정

그동안 중단상태에 있던 기숙사 문제의 가장 큰 장애의 하나였던 주민들의 반대는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공사중단으로 여러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 완전히 공사를 재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숙사신축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인근주민대표 김모씨의 감정적인 태도가 다소 누그러져 '반대서명을 한 주민의 의사를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학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학교건설부는 반상회를

을 통해 기숙사가 영리시설이 아니라 교육복지시설임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공사중단으로 인해 건설부의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시공업체였던 '형우종합건설'과도 계약해약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주민반대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곧 공사를 재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경대 증축도 기숙사공

교수3명 연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한국통신학회서 2천5백만원 지급

90년도 '한국통신학회'의 학술단체 육성지원 대상자로 본교 교수 3명이 선정됐으며 선정장령명단 및 선정액은 다음과 같다. ▲Telemetering 이용한 자동원격 기상정보측정 =박종국(공대·전자공)교수, 8백만원 ▲정보보호학분야의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 =이대영(공대·전자공)교수, 1천만원 ▲케이블TV시범지역에서의 매체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한규태(정경대·신방)교수, 7백만원

예비역 문무대입소 거부

연대본부측 예정대로 실시, 거부자 불이익 없어

서울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문무대 실시문제에 대해 학생예비군훈련 공동대책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와 예비군 연대본부가 두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지난 3일에 있던 2차협상에서 연대 본부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년 교육은 예정대로 문무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종전대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며 '올해 입소거부자에 대해서도 공대위와 의논, 장소·시간 등을 결정하여 향토사단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혀 불이익이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에는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문무대로 입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공대위는 1차협상에서 문제되었던 요구조건에 대한

태권도와 학생5명 국가대표로 선발 핸드볼팀 종별선수권대회서 우승

체육과학대학은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가원에서 열린 '아시아대회' 선발전 및 '월드컵대회'에 파견할 '태권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총5명이 선발됐다. 이번 대회의 선발자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대회 =△해비급: 최상진(태권도·3) △라이트급: 박세진(태권도·1) △미들급: 장철(태권도·2) ◇월드컵대회 =△페더급: 박선영(태권도·4) △해비급: 백영미(태권도·2) 한편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본교 핸드볼팀이 5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자매교와 학술교류 활발 BSU, 위스콘신, 일본대학등 내교

국제교류위원회는 해외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Ball State 대학 등 자매대학의 교류방문과 교환유학등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이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Ball State대학 교수, 학생 15명이 본교를 방문하고 평화복지대학원 견학, 학술교류와 함께 관광활동을 갖는다. 이기간중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안영수(문리대·영문)교수, 나종일(정경대·정치)교수가 한국의 역사·문화와 한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특강을 10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실시한다. 또한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아이스하키팀 수석코치 Jeff Sauer가 체육교류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본교를 방문한다. 한편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무대학 학장, 교수 등 4명이 본교를 방문해 총장, 치과대학장과 만나 양교 치과대학간의 교류에 관해 협의했다. 또 일본대학의 사이렌지 치과부장도 지난 27일부터 3일 간 조영식 총장을 방문하고, 양교 치과대학간의 학술교류 등을 논의했다. 또한 중회의학회 대외연락처 박순자 주임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본교를 방문, 한

결과 제때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다.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으로 작년 21대 총학생회의 마지막사업으로 '민주적 대의체계 수립을 위한 회칙개정'을 제기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하부단위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심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모르는결에 자취를 감추었고, 이 회칙개정이 22대 총학생회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아직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회칙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도 총학생회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자체적인 비판과 반성을 통해 나름대로의 민주적인 총학생회를 지향하고 있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의 솔로몬 못지않게 예산공개와 학생회칙에 의한 대의의회 소집은



◇ 지난1일 메이데이를 맞아 직원노동조합과 총학생회는 노학동맹의 가치를 높이 올렸다.

양캠퍼스 노동절 101주년 기념식

노동운동 탄압분쇄와 노학연대 결의

'제101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기념식 및 노동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자주경제 결의대회'가 지난 1일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직원노동조합 공동주최로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심민서(무예·4)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현대대공업 공권력 투입 및 부정보고와 'KBS부정 상황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었다. 이어 권영환(사무처 총무과)노조서물지부장은 노동절 기념사를 통해 '노동절 101주년을 맞아 경회거족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하나되어 학원자주화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노동운동 탄압하는 민자당

국문과 학생회 단식농성

서울캠퍼스 국문과 학생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민자당 장례식을 위한 국대단식'을 집행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민자당 투쟁속구및 경회학우의 대동단결을 위해 지난 2.3일 장성은(국문·3) 학생회장 등 2명이, 4.5일 학생들이 참여한다.

학생회 위상정립위해 견제기구 필요

▽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다. 'Pax Romana'를 자랑하던 로마의 5세기시대 이후 로마는 타락과 파벌의 나락으로 빠졌다. 현명한 황제들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비판과 견제세력이 없으면 타락하고 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끝까지 자식이 집권에 내어놓고 키운 자식보다 나약한 법이다. 좀 더 건장한 체질을 위해 매서운 채찍과 담금질을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88년 서울캠퍼스 제20대 총학생회 대의원의회의 소집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과대표들 대의원의회의 참여를 줄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족수가 모자란 것은 학생회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의 결과였다. 총학생회칙에 의한 대의의회 소집은

결국 제때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다.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으로 작년 21대 총학생회의 마지막사업으로 '민주적 대의체계 수립을 위한 회칙개정'을 제기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하부단위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심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모르는결에 자취를 감추었고, 이 회칙개정이 22대 총학생회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아직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회칙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도 총학생회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자체적인 비판과 반성을 통해 나름대로의 민주적인 총학생회를 지향하고 있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의 솔로몬 못지않게 예산공개와 학생회칙에 의한 대의의회 소집은

도 들린다. 그러나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관성적인 사업작품에서 파생되는 예산사용의 부실이나 독단적인 사안결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학생회, 특위등의 사업이 파행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올바른 비판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면 추후의 폭로대자로나 보이지않는 비난이 팽배해질 것이다. ▽학생회에게 의해서든, 독립된 기구로서든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견제는 있어야 한다. 학생회도 하나의 조직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볼때 견제기구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학생회에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진정한 견제, 비판기구는 또다른 형태의 참여가 아닐까.

“더 큰 바구니”

보다 큰 바구니는 대학주보가 항상 그리는 모습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바구니. 1955년에 창간하여 경희와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온 대학주보가 어느덧 창간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서른 다섯해를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대학주보. 이제 더 겸허한 마음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마음껏 담아낼 수 있는 더 크고 더 넉넉한 바구니가 되어.

